

우리투자증권의 등급전망 ‘긍정적’으로 변경: A+(S) → A+(P)

이혁진 금융2실 선임연구원 이창원 금융2실 실장
02.368.5480 02.368.5638
hjlee@korearatings.com cwlee@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이하 ‘KR’)은 2026년 6월 30일자로 (주)우리투자증권(이하 ‘동사’)의 기업신용등급(ICR)을 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기존의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변경한다.

[표 1] 등급전망 변경 내역

회사명	평가대상	종전		금번	
		등급	Outlook	등급	Outlook
(주)우리투자증권	ICR	A+	안정적	A+	긍정적
	기업어음	A1	-	A1	-
	전자단기사채	A1	-	A1	-

1. 등급전망 변경 사유(Key Rating Rationale)

금번 등급전망 변경은 1) 대규모 자본 확충으로 시장지위 및 사업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점, 2) 우수한 자본완충력에 힘입어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1) 대규모 자본 확충으로 시장지위 및 사업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2026년 5월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자본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 증자 후 자본 규모는 2.2조원(2026년 5월말 기준)으로, 종합IB(10개사)를 제외한 일반증권사 중 최상위 수준이다. 확충된 자본력에 힘입어 동사의 증권업 내 시장지위 및 사업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동사는 그룹 내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IB부문을 중심으로 사업확장을 추진 중으로, 특히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대출, 인수금융 등 IB부문 전반의 영업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용인력 확충 및 투자한도 확대로 운용부문 사업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으며, 우리금융그룹의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위탁매매, 자산관리 등 리테일 부문 사업역량도 제고될 전망이다. 단기간 내 종투사(자기자본 4조원 이상) 지정을 위해 추가적인 증자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지위와 사업기반이 종투사 수준에 이를 때까지 사업확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수한 자본완충력에 힘입어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증자에 힘입어 재무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증자 효과 반영시(2026년 3월말 수치에 자기자본 증가효과만 반영, 이하 동일) 수정NCR과 순자본비율이 각각 953%, 2,938%로 2026년 3월말(각각 490%, 754%) 대비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순요주의이하여신/자기자본 비율이 10.5%에서 5.9%로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위험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2025년 이후 운용부문 투자 확대로 주식 및 채권포지션이 증가 추세이며, 우발채무의 질적·양적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2024년말 우발채무 규모가 6,460억원으로 AA급 이상 CP 매입약정 중심 구조였으나, 2025년 이후 기업대출약정을 중심으로 우발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2026년 3월말에는 1조 1,345억원(자기자본 대비 비중 92.6%)에 달하고 있다. 금번 유상증자로 투자여력이 보강된 만큼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위험익스포저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위험투자 확대 추세가 지속되며 재무건전성 지표가 다소 저하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위험투자가 증가한 만큼 이익창출력이 개선되며 이익유보에 의한 자본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요시 모회사의 추가 재무 지원 가능성도 잠재하기 때문이다.

2. 등급변동요인

종금증권사로서의 차별적 경쟁지위와 그룹 차원의 재무적·사업적 지원을 통한 증권업 사업기반 확장으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익성과 이익창출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증자로 재무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나, 사업확장으로 위험익스포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지속적인 자본력 확충이 예상되나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위험투자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재무건전성 지표가 우수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표 2] 등급변동요인

상향변동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력 및 수익성 개선되고 ✓ 위험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무안정성 안정적 관리
---------------	---

주) 상기 등급변동요인은 장기 신용등급 기준임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황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가를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